

사회

음란영상 장난삼아 전송했다가...

청소년들 클릭 한번에 전과자로

광주서 10명 넘게 적발... 학교 예방교육 시급

광주 모 고교 1년 김모(15)군은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위반으로 신고됐다는 내용이었다.

김군은 지난달 24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자신의 집에서 음란 동영상 파일을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했다.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뒤 중학교 동창인 A(15·광주 모 고교 1년)양에게 30초 분량의 음란한 동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김군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4일에도 또다시 동영상을 전송했다. 호기심에 보낸 것이 문제가 될 줄은 깨닫

게 몰랐던 것이다. 경찰은 김군이 청소년인데다 초범인 점을 감안,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은 경찰에서 "이렇게 큰 범죄일 줄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한모(16·전남 모 고교 2년)군은 지난 4월 17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친구에게 보낸 음란한 영상에 화근이 돼 경찰에 출두해야 했다. 한군이 5분 분량을 다운로드 받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여 초.

이를 저장한 뒤 휴대전화를 통해 여자 친구에게 동영상을 보냈다. 한군은 경찰에서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범죄인 줄 몰랐다"며 여자친구한테 전송한 거라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성적 호기심에 휴대전화·이메일을 통해 친구·후배 등에게 음란한 동영상·메시지를 보내다가 전과자로 전락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양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아 사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 음란 동영상·메시지를 여자친구·지인 등 여성들에게 보내 전과자로 낙인찍힌 청소년 등은 모두 10명이 넘는다. 청소년들의 통신매체 성범죄는 늘고 있지만, 한군의 사례와 같이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범죄는 P2P(Peer to peer·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음란 동영상 등을 다운받은 뒤 이를 여성들에게

보내거나 지하상가·도서관 등지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게 대부분인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이는 큰 범죄행위다. 재미삼아 해보는 식으로 보냈다가는 평생 전과자의 낙인을 달고 살아야 한다"면서 "각 학교에서 '이것은 큰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 청소년들 상대로 주기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동영상 등의 유포를 금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수환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12일 완도군 완도를 여객선터미널 선착장. 인천선적 K호가 바닷물에 절반쯤 잠겨 있다.

완도~청산도 운항 철부선 선체 일부 침몰... 운항중단

기름까지 유출... 관광객 발길도 묶여

완도와 청산도를 오가는 철부선의 선체 일부가 침몰돼 운항이 중단됐다.

12일 새벽 4시30분께 완도군 완도읍 여객선터미널에서 인천선적 996급 철부선 K호(선장 김모씨·42)의 뒷부분이 바닷물에 잠겨있는 것을 행인 김모(59)씨가 발견, 완도해양경찰에 신고했다.

후미에 위치한 기관실이 물에 잠기면서 기름이 유출됐으며, 철부선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도 묶였다.

완도~청산도를 하루평균 수 차례 부정기적으로 오가는 K호는 완도 청산농협에서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임대 중인 철부선이다.

K호는 전날 오후 7시 청산도에서 출발해 완도 여객선터미널 선착장에 도착, 정박 중이었다. 해경은 철부선과 선착장을 연결한 40mm의 로프가 썰물로 팽팽해지면서 끊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16일 김 선장을 해양 환경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은 이날 방제작 등

을 동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기름띠 제거작업에 나서는 등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부익금 100만원은 뇌물 법원 판결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허명산 판사는 재개발 조합장에게서 부익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마포구청 공무원 A(51)씨에 대해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뉴타운 관련 업무를 맡던 2008년 모친상 때 재개발 조합장 유모씨한테서 부익금 100만원을 받고 '사업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600만원을 청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부익금이 3만~30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50만원을 낸 사례가 한 건이었던 점을 볼 때 100만원은 뇌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부킹너 엉덩이 만졌다 경찰서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 만남을 갖던 30대 유부남이 30대 유부녀로부터 엉덩이를 만졌다는 항의를 받고 시비를 벌이다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38)씨는 12일 새벽 2시15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나이트클럽에서 일행과 함께 즉석 만남을 가진 B(여·34)씨 엉덩이를 2차례 만졌고, 이에 화가 난 B씨가 A씨의 뺨을 때리는 등 서로 다투다 두사람 모두 연행.

○경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횡설수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작가 휴가로 이번 주 만화·만평 쉽니다.



일본 대학생들 광주학생독립운동 참배 12일 전남대 국제여름학교에 참가중인 일본 고쿠시칸 대학생과 전남대생 30여명이 광주시 서구 쌍촌동 광주학생독립기념관을 찾아 일제강점기 당시 광주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에 대해 설명들을며 참배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노래방 도우미 필로폰 먹인 뒤 강간

전남경찰, 40대 영장 12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에

게 필로폰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폭력조직 행운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별세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본명 김봉남)이 12일 별세했다. 향년 75세.

서울대병원 측에 따르면 앙드레김은 12일 오후 7시25분 입원중이던 서울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앙드레김은 최근 대장암과 폐염으로 지난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중환

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며, 12일 갑자기 증세가 악화돼 산소호흡기를 착용했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앙드레김은 그간 대장암으로 투병해 왔으나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차려질 예정이다.

/양수환기자 yang@kwangju.co.kr



75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왕성한 활동을 해온 앙드레김은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로 최근까지 대규모 패션쇼를 열기도 했지만 올해 들어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자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불법체류 중국인 4층서 투신 자살

지난 11일 오후 6시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한 상가건물 4층 에스컬레이터 난간에서 중국인 왕모(32)씨가 1층 바닥에 추락한 것을 행인 이모(23)씨가 발견,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왕씨는 중국어로 "죽고싶다"는 등의 고함을 친 뒤 가지고 있던 현금 6000원을 뿌린 뒤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30일 단기관광비자로 입국한 왕씨는 체류기간(15일)을 넘겨 해남의 양계장 등지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국 내 왕씨의 가족상황을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유괴범 형량 높인다 대법 양형위

미성년자 유괴범이나 유해식품 판매업자, 전문 문서위조범에 대한 선고 형량을 높이고, 문화재 절도범은 가중처벌하는 양형(量刑)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12일 공청회를 열어 공문서, 식품·보건, 약취·유인, 절도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제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제시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성년자 등을 납치해 금품을 요구하면 기본적으로 징역 5~8년, 가중하면 징역 7~11년이 선고된다. 이는 지금까지 동종 범죄에 선고된 평균 형량보다 1~5년가량 높아진 것이다.

/연합뉴스

슬리퍼 신고 운전 하마터면...

여수서 20대, 브레이크 못 밟아 바다 추락

새벽에 슬리퍼를 신은 채 운전하던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바다에 빠져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2일 새벽 5시 45분께 여수시 종화동 하벌 등대 앞 해상에서 이모(27·여수시 신기동)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방파제 5m 아래 바다로 추락했다.

길가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 해양경찰과 119구조대는 차량 밖으로 나와 물에서 허우적거리던 이씨와 차안에 있던 박모(24)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후송했다.

이날 사고는 운전자 이씨가 슬리퍼를 신고 차를 몰던 중 슬리퍼가 벗겨지면서 브레이크를 미처 밟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운전자들이 슬리퍼를 신거나 신발을 구부려 신은 채 운전을 하다 신발이 벗겨지면 당황해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순천시 父子 바다 빠져 40대 사망... 아들은 구조

12일 새벽 0시15분께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방파제에서 낚시하던 양모(46·순천시 해룡면)씨가 바다에 빠져 출동한 해경과 119대원에 의해 이날 오후 2시께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함께 낚시를 하던 아들(19)은 아버지를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구조에 실패한 후 주변 낚시꾼들이 던진 밧줄을 잡고 빠져 나왔다.

여수해경은 양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닌가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자이언트 골프존**

GOLFZON

광주 최고사설 스크린골프장

자이언트골프존